

패션쇼의 트렌드 反映性에 關한 研究

- 실루엣, 디테일, 色相, 패션 이미지 等 4가지 디자인 要素를 中心으로 -

李 明 姬

韓國纖維開發研究院 附設 纖維機術大學 패션디자인과

A Study on the Reflective Property of Trends in Fashion Shows

-Focused on Three Designing Factor of the Silhouette, the Detail, the Color and the Fashion Image -

Myung-Hee Lee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Textile Technology Attached to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shion trends that were introduced in the recent shows, held abroad and in Korea, so as to investigate how well the designers in Taegu and Kyungbuk (TK) area are keeping up with the international vogue. The research has done, analyzing Pret-a-Porter in Paris and the three events held in the TK area in 1997 -The Taegu Collection, Kyungbuk Fashion Festival and Textile & Apparel Fair and using reference pictures and documentary record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rends the research is divided by four groups which are the silhouette, the detail, the color and the Fashion image and has done with the help of three post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ilhouette

The slim-line has the greatest importance in the silhouette analysis of the recent collections. Like Elongated and Fit & Flare, tight-fitting and female-line were also appeared quite a lot. Compared with foreign collection, Korean collections put the bigger importance on the slim-line.

2. The Detail

The printings, using paintings and plant-logos had the large portion of the accessories in both foreign and Korean collections. Draw string and wrap style were also presented a lot. Especially, at the Korean collections, layerd, corsage, and craft accent were emphasized, too. As for the necklines the similarity was found over the four events considering. Camisole neckline and halter neck were presented the most, and bared top, V-neckline, boat and low-neck which can highlight the femininity were often appeared as well. Considering collars, tailored and peaked collars which are frequently used for the jackets, were usually shown at the collections. Like convertable, shirts, wing and Italian collar, the collars that can be applied for the sports wears were presented a lot. Virtually no variation of design was found in the sleeve analysis. While set-in-sleeve and sleeveless were found commonly, not so many ornaments were added to the sleeves. The ankle and knee length for the pants and skirts were common. Furthermore, including the micro-mini, showing extremely feminine style the mini-style had the 20% portion of the skirt-length. Unbalanced lengths, using bias-cut were presented quite a lot on the runways. Deep slit skirts, wide pants and irregular hem skirts were in vogue. On the runways of Paris, more than 21% of the design was the burmuda pants.

3. The Color

Red and Blue were in vogue in the four collections considering. Sometimes, yellowish was combined in

Korean collections. Black and pale tone were appeared to be in fashion also with light grayish, moderate and deep tone.

4. The Fashion image

As for the fashion image, feminine-decorative trend amounted to the large percentage in Korean collections. At the foreign collection feminine-decorative trend and feminine trend were predominant, then mannish trend and simple trend were appeared equally.

The research shows that TK area and foreign collections are fairly similar, which means that the designers in TK area have been making their efforts to satisfy the clients who have the international minds. However, compared with foreign collections, TK collections were appeared to be strongly inclined to only a few trends. Consequently the season trends are not as diverse as the foreign trends, which cannot satisfy the fashion taste of the clients in TK area. The local designers should know the tendency and the taste of the clients and make the more efforts to read local clients' mind.

I. 서론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패션쇼는 패션 산업의 발달과 함께 그 규모와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¹⁾ 특히 섬유도시인 대구에서는 대구 섬유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기대하고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간 수차례의 대형 패션쇼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 컬렉션의 경우 1989년 제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이미 10년째를 맞이함으로써 지방에서는 중견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지역 디자이너들과 해외 디자이너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가 하면, 의상, 의류계열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산학 협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 외에 직물업체와 지역 디자이너가 연계되어 개최하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그리고 경북 패션 페스티벌 외에도 다수의 지역디자이너 개인쇼가 대구에서 매년 성대하게 치뤄지고 있다. 연구 자료²⁾에 의하면 이러한 패션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류업체에서 중요시하는 정보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역사가 긴 만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하여 현재 기성복 업체의 총아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의 유행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가 되고 있다. 또 그동안 국내 패션 산업이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는 이시점에서 패션 트렌드의 측면에서 지역 패션쇼를 정리 분석해 봄으로써 오늘의 위치를 확인하고 금후의 지역 패션 산업을 예측하고 전망할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학술분야에서 패션쇼와 트렌드에 관한 연구는 기성복 광고의 관점이나 하나의 정보원으로써 혹은 단순한 트렌드의 시대별 분석^{3,4)}에 관한 문헌 고찰 정도로 미세하게 다루어져 왔을뿐 패션쇼 자체를 분석하여 시대별 트렌드 반영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연구는 1997년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조사를 통한 마

케팅 환경 분석을 비롯하여 1997년에 대구에서 개최된 대형 패션쇼 4종류를 아이템 포인트 별로 분석 정리 하여 지역 디자이너들의 해외 트렌드 반영성 여부를 살펴보고, 현 의류 업체에서 요구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구 패션 산업의 미래 지표로써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적 자료와 사진 자료분석을 병행 실시하였다. 문헌 자료로는 국내 정기, 비정기 간행물에 기록된 패션쇼와 트렌드 관련 기사를 참고하였고, 사진 자료는 97년에 대구지역에서 치뤄진 98년 春夏 패션쇼 3종류와 해외 패션쇼는 파리 프레타 보르테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패션쇼의 역사

1966년에 디자이너 노라노에 의해 최초로 패션쇼가 개최된 이래로 1960년까지 최경자 의상 발표회 등 26차례의 패션쇼가 개최되었다.⁵⁾ 1950년대의 패션쇼의 개최 목적은 유행을 제시하기 보다는 양장을 보급하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⁶⁾

양장점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60년대에는 패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1962년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 패션쇼가 한국 엑스란회 주최, 한국일보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는 새로운 복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주최하는 대규모 메이커쇼가 패션쇼를 주도했다. 63년에 일본의 섬유업체인 데이진(帝人)주식회사가 신소재 테토크를 한국에 홍보하기위해 기획된 한일 천선쇼⁷⁾가 개최된 이후 67년에는 국내 의류소재 메이커로서는 최초로 경남모직이 K 앙고라텍스 및 신소

재 카시모의 홍보를 목적으로 패션쇼를 주최했다.⁸⁾

1972년에는 개인디자이너들의 기성복 진출로 인하여 신세 계백화점 매장을 중심으로 한 기성복쇼가 활발해졌으며, 75년에는 삼성물산의 「댄디 맥그리거 패션축제」⁹⁾, 76년 제일모직의 「'76 춘하 골덴 니트쇼」¹⁰⁾, (주)반도의 패션쇼¹¹⁾ 등 대기업들의 기성복 패션쇼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패션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대규모 패션쇼가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기성복업체 및 백화점 주최의 패션쇼는 구체적 목적을 가진 행사로 변하여 패션쇼의 판매촉진기능이 부각되면서 대중화 현상이 나타났다.¹²⁾

1986년 10월에 하이패션 기성복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패션협회가 개최한 제1회 서울 국제 여자 기성복 박람회(SIFF)는 프레타보르데 형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국내 패션쇼의 국제화의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과 함께 패션분야에도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했었던 1988년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브랜드들의 패션쇼도 활발하게 개최되는 등 1900년 이후 패션쇼가 가장 많이 있었던 한해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컬렉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S.F.A.A 컬렉션이 열렸다. 서울 패션 아티스트협회 소속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행사로 이 컬렉션 이후 다른 그룹들도 자신들의 컬렉션을 갖게 되면서 패션쇼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¹³⁾.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대구컬렉션」 「경북컬렉션」 등의 컬렉션이 개최되고 있다.

2 '98 봄/여름 패션환경 분석

90년대 이후 신세대의 출현과 패션에 대한 의식 전환등 이러한 패션 진화 현상은 90년대 후반 이후의 패션구조를 변혁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고, 모든

것이 믹스되며 어울려질수 있으므로 성과 연령 개념의 파괴뿐 아니라 服種이나 材質 그리고 디자인의 모든 영역에서 크로스오버도 가능해진다. 더구나, 90년대 이후의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은 디자인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나 1997년 하반기 부터 경기 침체와 더불어 현대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반동의 일환으로 자연회귀적이고復古적인 움직임도 가시화 되었다. 특히 '98 봄/여름(Spring/Summer)에는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1920년대와 비슷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20년대의 대표적인 플라퍼룩(flapper look)과 그 당시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비요네(M. VIONNET)의 바이어스 재단법을 믹스한 형태가 이번 시즌에 대표적인 디테일로 급부상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服種에서 레이어드(layered)나 소재자체에 플라워 패턴(flower pattern)의 응용등으로 '98 봄/여름 시즌의 여성복을 더한층 페미닌하고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정보사 및 국내 3개 연구소^{14,15,16)}에서 1997년에 발표한 '98 봄/여름시즌의 패션 트렌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연구에서는 1997년에 대구지역에서 개최된, 대구 컬렉션(10월 10일-11일), 경북 패션 페스티벌(12월 22일),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10월 11일)과 해외 컬렉션으로는 파리 프레타 보르데(9월 5일-8일) 관련 사진 자료¹⁷⁾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컬렉션 참가 의류 중 여성복에 한했으며 국내 패션쇼 사진 자료는 대구 패션조합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와 해외 컬렉션의 경우는 콜렉시오니(Collezioni) 잡지의 사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배경	세기말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혼돈 상태, 각 기업체의 구조조정,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 고조, 실질적 자기 중심적 독창성 지향, 개성과 이미지를 추구하는 EQ중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21세기 도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킷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 따른 시간제 마케팅 도입
------	--

패션산업 & 패션 마케팅	성개념의 파괴 현상 - 유니섹스 브랜드 증폭 및 일반화 - 젠더리스(genderless) 의 부각 - 남성 여성 복종의 크로스 코디네이션(crosscoordination) 연령개념의 파괴 - 미시 시장의 허무화 및 영 브랜드 집중화 정장, 캐주얼, 진, 스포츠 웨어의 복종 개념 파괴 현상 가격 파괴 및 가격 개념의 변화 현상 기존 유통 개념 파괴 현상- 신규아울렛 중심과 지역 단위 상권 중심.
---------------	---

	<p>키워드</p> <p>뉴로맨틱(New Romantic),뉴 에콜로지(New Ecology), 뉴에스닉(New Ethnic), 뉴테크노(New Techno)</p>
<p>패션 트렌드</p> <p>패션 트렌드 및 아이템 경향</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 패션 트렌드 및 아이템경향</p>
<p>소재 경향</p>	<p>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편안한 활동성을 고려한 컴포트(comfort)소재군에 주목. 스트레치(stretch)를 가미한 기능성 소재. 니트 앤 저어지(knit & jersey) 등의 신축성을 강조한 소재. 내추럴한 소재 감각 부상, 소프트(soft)한 터치 프린팅 등의 트렌디 하모니. 고풍스런 레이스(lace), 자수직물, 오팔가공, 플로키, 수공예 기법, 골드(gold)장식.</p>
<p>색상 경향</p>	<p>중간 색조가 돋보이는 시즌으로 그린(green)에 블루(blue)거나 옐로우(yellow)끼를 섞고, 레드(red)에 옐로우(yellow)거나 비아올렛(violet)끼를 섞는다. 채도가 높은 색상 보다는 그레이(gray)끼가 가미된 색상이 많이 보인다.</p>

2 분석자료

국내외 패션쇼의 출품작을 비교 분석함을 있어 오희선, 박화순¹⁸⁾, 패션칼라(Fashion color)¹⁹⁾의 분류에 따라, 디자인 요소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크게 3가지 즉 실루엣(silhouette), 디테일(detail), 그리고 색상(color)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 분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류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3명이 합동으로 분석하고, 자료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진 촬영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자료나 분석자 모두 일치하지 못하는 자료에 한해서는 제외시켰다.

IV. 연구결과

1. 실루엣(silhouette)

의복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실루엣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유행의 기본이 되어 유행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결정한다. 따라서 의복 형태 분석에서 전체적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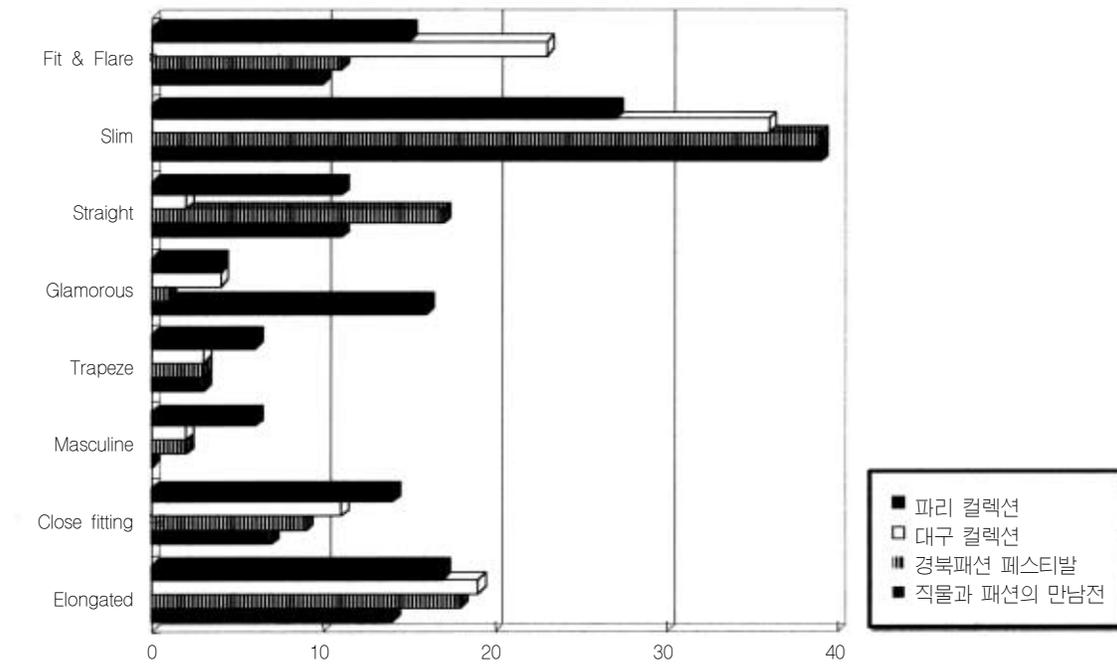
향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루엣 분석이 된다.

전반적인 실루엣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가녀린 여성미를 가미한 단순하고 슬림한 실루엣을 큰 주축으로 대부분의 실루엣에서 허리에 여유가 없고 몸에 피트하여 바디 라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들어 글래머러스(glamorous)실루엣은 과장적인 실루엣이 아닌 여성적인 라인을 강조한 샤프하고 자연스런 어깨라인의 레트로 글래머러스(retro glamorous) 라인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이트(straight)실루엣은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린 약간 타이트한 경향을 띄고 있어서 컬럼(column)라인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스크린(masculine)실루엣도 몸에 피트되면서 구조적인 라인을 살리고,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실루엣은 주로 허리 라인을 강조하여 웨이스티드(waisted) 라인을 내포하고 있다.

<표 1>의 행사별 실루엣 비교 분석표를 살펴보면, 슬림 라인(slim line)이 전체 실루엣의 약 27%~ 39%로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외 엘롱게이티드(elongated)는 각 행사별

<표 1> 행사별 실루엣 분석표



로 14%, 18%, 19%, 17%,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는 10%, 11%, 23%, 15%로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적 바디에 슬림(slim)한 라인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은 다른 행사와 달리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한 글레머러스(glamorous)실루엣이 16%인 큰 비중을 나타내 로맨틱하고 페미닌한 분위기 연출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북패션 페스티벌의 경우는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이 17%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라인이 비중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 컬렉션의 경우 슬림 라인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국내 행사와 공통되지만 전반적인 실루엣 분포가 국내 3개 행사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디자이너들의 해외 트렌드 반영의 여부에 있어서, 실루엣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속한 수용태도를 보이거나 바디에 밀착되는 라인에 크게 편중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2. 디테일(detail)

실루엣이 복장의 외곽선인데 비해 디테일은 세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의복에서는 네크라인, 칼라, 포켓 등을 가리키며 최근에는 소매등 옷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디테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선¹⁸⁾, 박화순¹⁹⁾의 분류에 의해 디테일을 부분장식, 네크라인, 칼라, 소매, 스커트와 팬츠

의 5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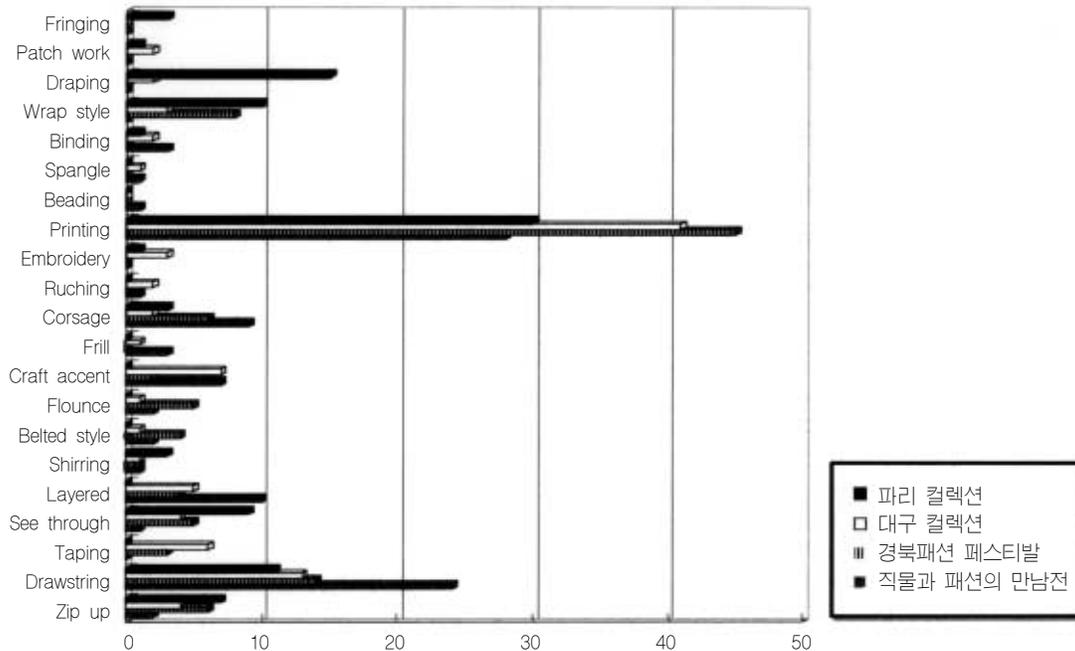
1) 부분장식

부분 장식은 의복을 개성적으로 보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의복의 가치도 높여주므로 다양한 부분 장식을 변형해서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소재에 직접 프린팅한 것으로 프린팅된 문양은 크게 식물문양과 회화의 삽입을 들 수 있다. 식물문양은 이번 '98 봄/여름 트렌드의 뉴 에콜로지(new ecology)경향에 맞추어서 각종 식물 잎과 꽃무늬가 단순한 프린트를 넘어서 자수나 패치워크 등 기법면에서도 다양하게 연출되었으며 특히 장미는 주로 크래프트 액센트(craft accent)와 코스아쥬(corsage)로 나타난 경우가 현저했다. 또 '98 봄/여름에는 테임류가 유난히 많이 보인 해였는데 길게 그냥 늘어뜨린 드로스트링(drawstring)도 하나의 부분 장식으로 활용되었는가 하면 옷의 전면이나 다아트 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장식적인 선으로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다양한 복종에 응용된 레이어드인데 넓은 팬츠 위에 램스커트의 매치나 여러겹의 상의를 층층히 배열시켜서 색상의 다양한 배색을 연출하였다.

<표 2>는 각 행사별 부분장식 비교 분석표로서 전반적으로 국내외 모두 프린팅(printing)은 28%, 45%, 41%, 3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외 드로스트링(draw string) 24%,

〈표 2〉 행사별 부분장식 비교분석표



14%, 13%, 11%, 랩 스타일(wrap style) 0%, 8%, 3%, 10%, 레이어드(layered) 10%, 14%, 5%, 0%, 코사쥬(corsage) 9%, 6%, 2%, 3%, 크래프트 액센트 (craft accent) 7%, 2%, 7%, 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린팅(printing)기법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한 프린팅이 많았는데, 주로 꽃과 잎을 응용하였고 그 표현이 보다 풍부하고 감각적으로 나타났다. 로맨틱 엘레강스(romantic elegance), 페미닌한 무드의 영향으로 보다 부드럽고 다양한 꽃무늬가 나타나 보였는데, 특히 장미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그 표현기법으로는 수채화 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의 두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그외 열대식물 모티브(botanical motif)

역시 식물의 순수한 형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봄의 싱그러움과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표현하였다. 또 대구 컬렉션에 출품한 강진영의 경우는 그의 작품 대부분에 세기말적 예술사조의 대표자인 클렘트 회화를 그대로 의복에 도입하여 현대 패션의 세기말적 경향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었다.²⁰⁾ 그리고, 레이어드(layered)에서는 이국적인 감각과 내추럴한 감성을 믹스한 스타일로 자켓, 스커트, 팬츠 등의 기본 아이템을 코디네이트 시키거나 서로 다른 소재의 믹스로 소재에 의한 크로스 오버(crossover)를 응용한 다양한 레이어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외 드로스트링(draw string)이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에서 24%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가

하면, 드레이핑(draping)이 유일하게 파리 컬렉션에서 15%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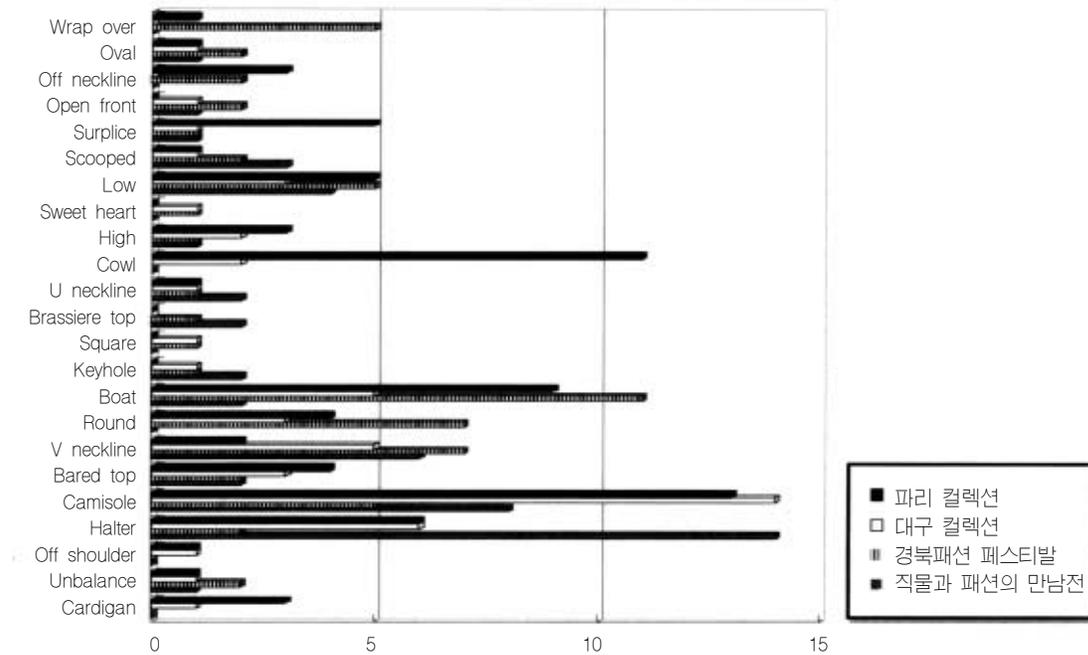
2) 네크라인(neckline)

'98 봄/여름에는 끈으로 된 캐미솔 네크라인과 베어드 탑(bared top) 그리고 보트(boat)형과 같이 목을 완전히 노출 시킨 형과 홀터넥과 같이 앞보다는 뒤를 절개하여 보다 섹시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네크라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해외 컬렉션의 경우는 카울(cowl) 네크라인과 같이 드레이프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네크라인이 많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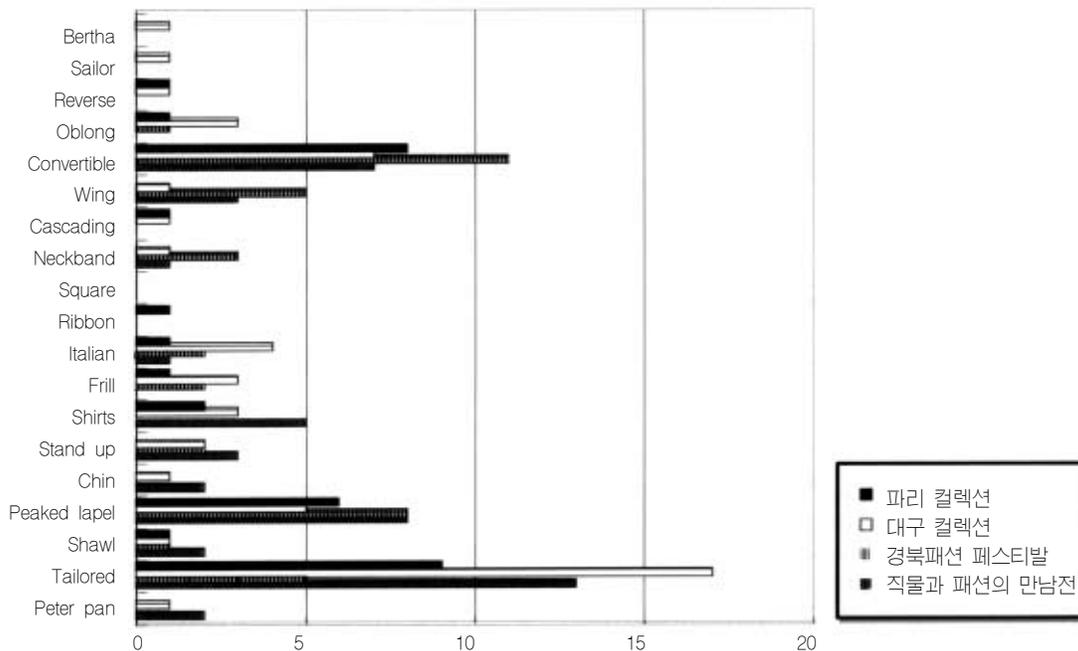
〈표 3〉은 행사별 네크라인 비교분석표로써, 가는 끈으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낸 캐미솔 네크라인(camisol neckline)이 8%, 5%, 14%,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등부분을 완전히 절개한 홀터넥(halter neck) 14%, 2%, 6%, 6%이었는데, 이는 '98 봄/여름 트렌드의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무드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외에도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베어드 탑(bared top)이나 브이(V)네크라인과 보트(boat), 로우(low) 네크라인 등, 비교적 여성의 가는 목 언저리를 완전히 노출시킨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카울(cowl) 네크라인과 같이 드레이프로 형성되는 네크라인의 경우는 파리 컬렉션에서만 11%로 높게 나왔고 국내 컬렉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표 3> 행사별 네크라인 비교분석표



<표 4> 행사별 칼라 비교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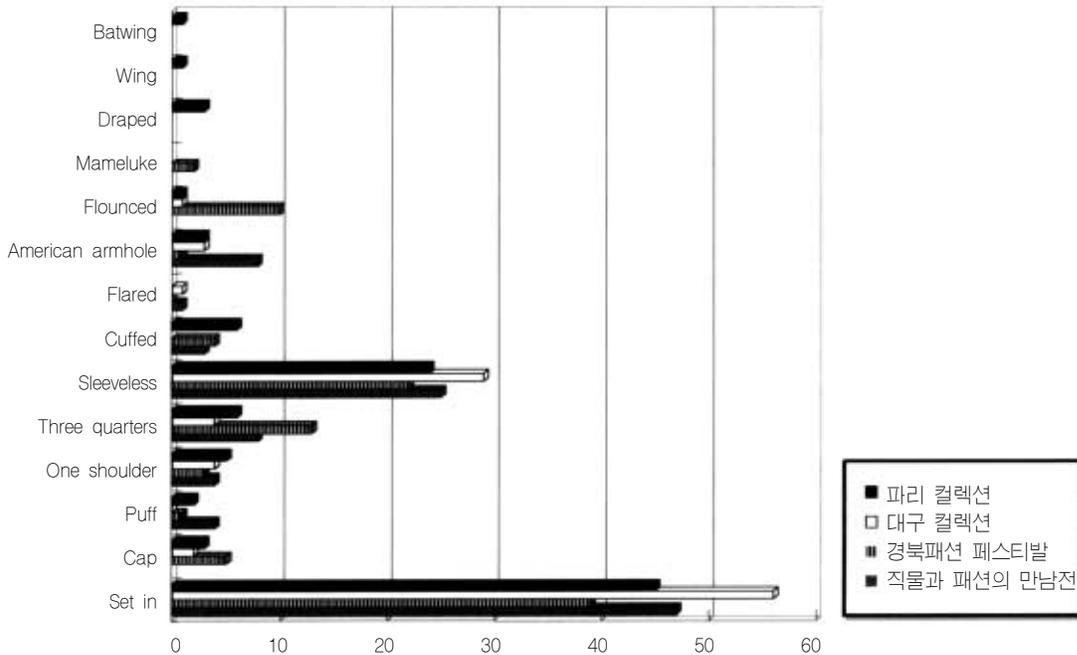
3) 칼라(collar)

칼라는 테일러드나 피크트 칼라(peaked collar)와 같이 정장 분위기의 칼라나 컨버터블(convertable)과 같이 스포츠웨어나 정장류에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는 칼라도 많이 나타났다. 기타 캐주얼한 분위기의 이탈리아 칼라와 셔츠칼라 그외에 러

플(ruffle)로 처리되어 다소 장식적인 캐스캐이딩 칼라(cascading collar)도 간혹 나타났다.

<표 4>는 행사별 칼라 비교 분석표로써 국내외 모두 자켓류에 많이 쓰이는 테일러드(tailored)는 13%, 5%, 17%, 9%, 테일러드 칼라의 라펠(lapel) 형태가 변형된 피크트(peaked) 8%, 8%, 5%, 6%로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컨버터블(convertable)

<표 5> 행사별 소매 비교분석표



7%, 11%, 7%, 8%과 같이 다각도로 활용가능한 칼라와 셔츠(shirts), 윙(wing), 이탈리아(italian)과 같이 스포츠 웨어에 활용 가능한 칼라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98 봄/여름 트렌드의 캐주얼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그밖에 친(chin), 스탠드 업(stand up), 네크밴드(neckband)와 같은 하이 칼라(high collar)류는 국내 패션쇼에서만 나타날뿐 해외 컬렉션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4) 소매(sleeve)

'98 봄/여름에 나타난 소매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본형인 셋 인 슬리브(set in sleeve)와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sleeveless)이며 7부 길이의 쓰리 쿼터 슬리브(three quarter sleeve)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한쪽 어깨만 있는 원 쇼울더(one shoulder)형태나 소매라인을 길 안쪽 까지 깊게 절개하여 양 어깨를 많이 드러낸 아메리칸 암홀(american armhole)도 이번 시즌 상의의 레이어드(layered) 경향에 따라 많이 나타났다. 그외 드레이프(drape)나 플라운스(flounce)와 같이 장식적인 소매도 여전히 많이 나타났다.

<표 5>는 행사별 소매 비교 분석표를 나타낸 것으로 4개 행사 모두 소매의 기본형인 셋인 슬리브(set in sleeve)가 47%, 39%, 56%, 45%로, 슬리브리스(sleeveless)가 25%, 22%, 29%, 2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외에 쓰리쿼터(three quarter sleeve) 8%, 13%, 4%, 6%, 아메리칸 암홀(american armhole)은 8%, 1%, 3%, 3%, 원 쇼울더(one shoulder)

는 4%, 3%, 4%, 5%로 간간히 보였다. 비교적 소매 자체에 턱(tuck)이나 개더(gather) 등과 같은 장식적인 변형을 가미하기 보다는 셋인(set in)과 같이 간단하고 심플한 형태가 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형태로 마무리하거나 소매 길이 조절로 다양함을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에서는 간간히 드로스트링(drawstring)이나 셔링(shirring), 로즈버드 트리밍(rosebud trimming)등으로 장식하거나, 경북 패션 페스티벌에서는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플라운스(flounce)를 붙인 형태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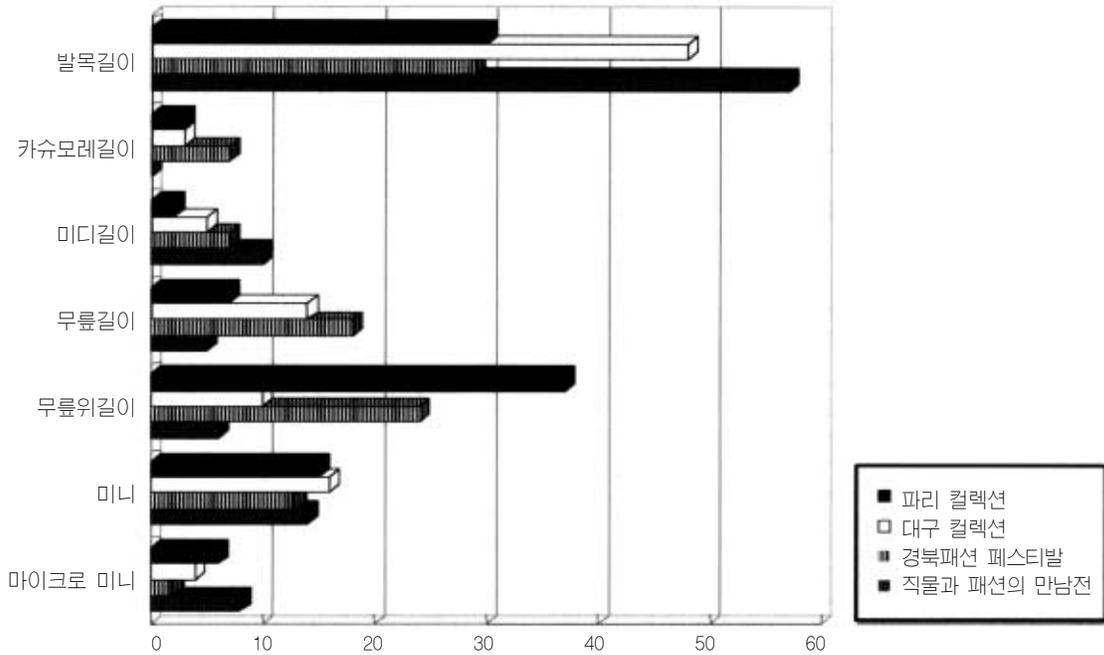
5) 스커트(skirts)와 팬츠(pants)

① 길이에 따른 분류

하의(下衣) 길이의 장단(長短)은 미세한 차이에도 전체의 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스커트 길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미니, 미니, 무릎위 길이, 무릎길이, 미디길이, 까쉬모레길이, 발목 길이의 7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은 행사별 하의 길이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발목 길이와 무릎위 길이가 가장 큰 강세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발목길이(57%, 29%, 48%, 30%), 무릎위 길이(6%, 24%, 10%, 37%) 무릎길이 (5%, 8%, 14%, 7%)의 3가지 종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국내 컬렉션의 경우에는 발목길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마이크로 미니를 포함한 미니 길이도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여, 페미닌한 스타일을 기본

<표 6> 행사별 하의길이 비교분석표



으로 한 섹시 로맨틱(sexy romantic)의 '98 봄/여름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비교적 긴길이와 아주 짧은 길이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카슈모레와 미디와 같은 어중간한 길이는 극히 적게 나타났다. 또 여성스러운 로맨틱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어스 컷을 이용한 언밸런스(unbalance)길이가 등장했는데 국내 패션쇼에서는 무릎길이, 미디길이, 카슈모레 길이, 발목 길이의 긴길이 나타난 반면 해외 컬렉션에서는 마이크로 미니, 미니 길이, 무릎위 길이, 무릎길이의 짧은 길이가 등장하여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다.

② 하의 디자인에 따른 분류

스커트류에서 길이의 장단에 관계 없이 슬릿이 깊게 들어간 스커트로 여성미를 강조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 이레귤러 햄 스커트(irregular hem skirts)와 같이 단부분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사선 바이어스를 응용한 것으로 보다 페미닌한 라인으로 연출한 아이템도 많이 보였다. 또 팬츠류에서도 단을 넓힌 와이드 팬츠(wide pants)류와 팬츠 위에 스커트를 겹친 랩 어라운드 팬츠(wrap around pants)가 이번 시즌의 로맨틱 페미닌 트렌드에 맞춰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길이에 따라 버뮤다 팬츠나 사브리나 팬츠 혹은 짧은 핫팬츠도 간혹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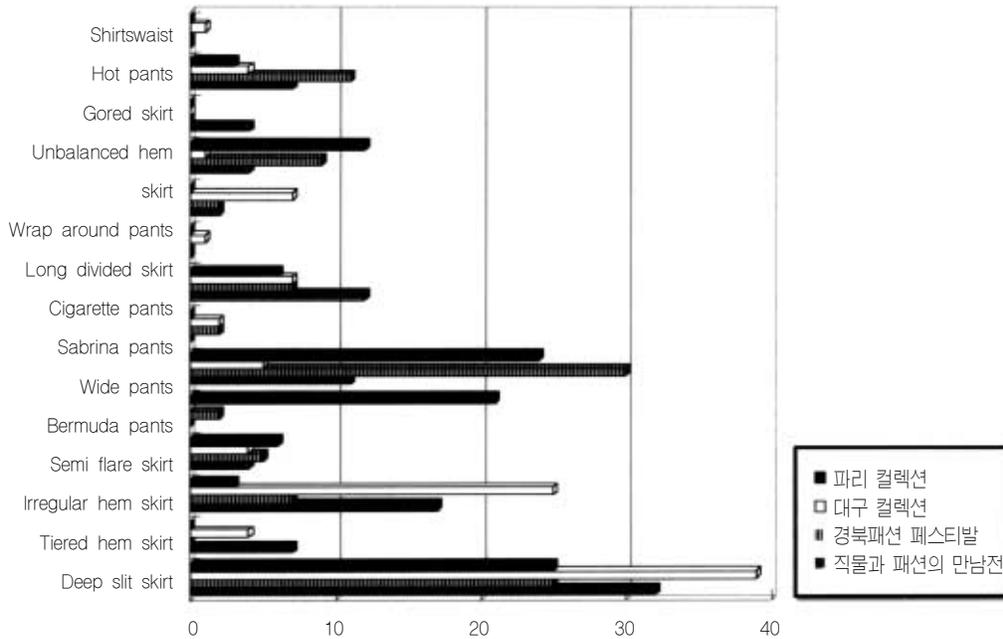
<표 7>은 행사별 하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지극히 여성스러운 라인을 연출하는 딥 슬릿 스커트(deep slit skirt)는 32%, 25%, 39%, 25%로 나타났으며, 와이드 팬츠(wide pants 11%, 30%, 5%, 24% 그리고 이레귤러 햄 스커트

(irregular hem skirt)가 17%, 7%, 25%, 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바디에 밀착하여 몸의 곡선을 드러낸 시가렛 팬츠(cigarette pants)도 국내 행사에서는 상당 부분 보이고 있으나 역시 로맨틱한 페미닌을 구축하는 와이드 팬츠(wide pants) 11%, 30%, 5%, 24%와 랩 어라운드 팬츠(wrap-around pants) 2%, 2%, 7%, 0%에 비해 퇴조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다. 기타 팬츠류에서는 파리 컬렉션에서 버뮤다 팬츠(bermuda pants)가 21%이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스포츠에 영향을 받아 골프웨어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스커트에서는 슬릿을 깊게 넣은 딥 슬릿 스커트(deep slit skirt)나 1920년대 비요네(M. VIONNET)가 주로 사용한 방법을 복고 하여 사용한 불규칙적인 햄라인과 언밸런스 라인의 바이어스 컷(bias cut)을 이용하여 더 한층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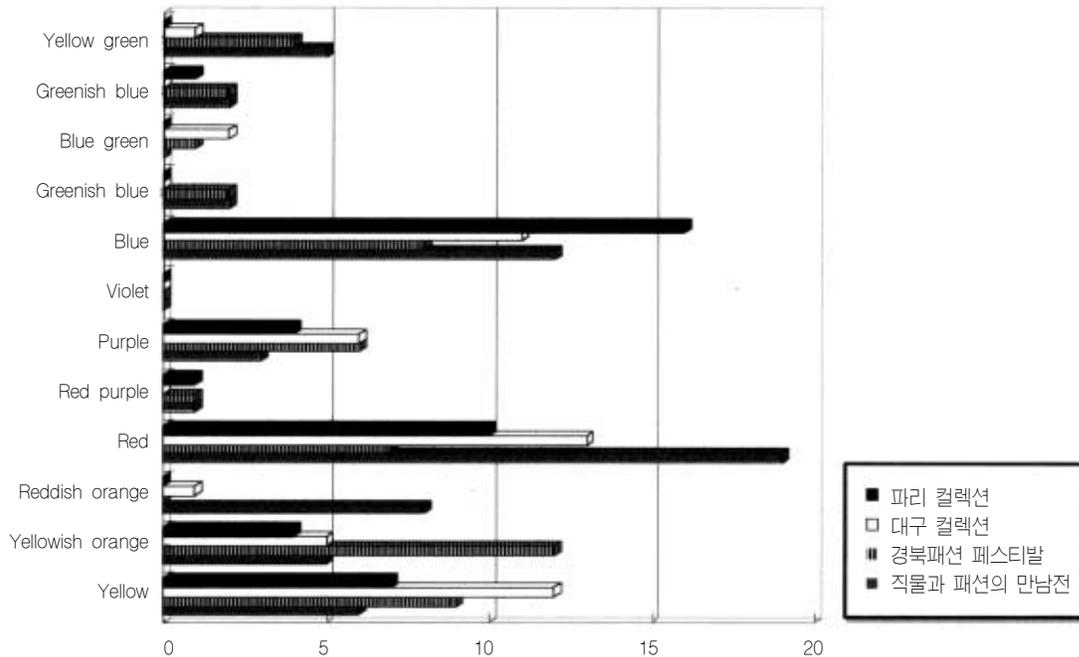
3. 색상(color)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에서는 주로 레드(red)계와 블루(blue)계 그리고 옐로우(yellow)계가 강세를 보였으며, 경북패션페스티벌의 색상 분포는 다른 컬렉션에 비해 보다 산발적이었는데 주된 색상은 역시 옐로우(yellow)계였고 그 다음이 레드(red), 퍼플(purple)과 블루(blue)계열 이었다. 대구 컬렉션의 색상의 분포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과 같이 레드(red), 옐로우(yellow), 블루(blue)의 3개 색상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표 7> 행사별 하의 디자인 비교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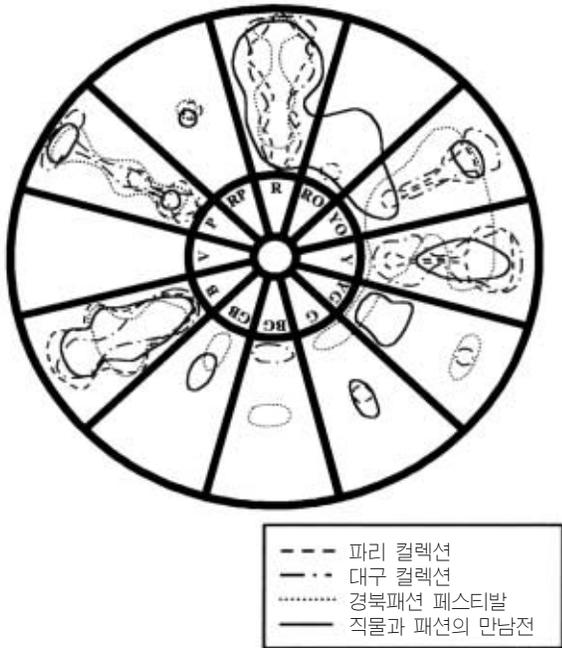
<표 8> 행사별 색상 비교분석표



파리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는 국내 컬렉션이 주로 레드(red), 블루(blue), 옐로우 (yellow)계 중에서도 옐로우(yellow)계가 가장 강했던 것에 비해 파리의 경우는 레드(red), 블루(blue)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8>은 행사별 색상 비교분석표로써 레드(red)는 19%, 7%, 13%, 10%, blue 12%, 8%, 11%, 16%로 4개 행사 모두 강세

를 보였으며 그밖에 옐로우(yellow) 6%, 9%, 12%, 7%, 옐로이쉬오렌지 (yellowish orange) 5%, 12%, 5%, 4%, 옐로우 그린 (yellow green) 5%, 4%, 1%, 0% 등 옐로우(yellow)계열이 특히 국내 행사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레드(red)와 아울러 여성미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퍼플(purple) 역시 3%, 6%, 6%, 4% 로써 '98 봄/여름 트렌드인 페미닌 로맨틱에 맞추



<그림 2> 행사별 색상경향 비교

어서 4개 행사 모두 골고루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봄을 상징하는 색상인 그린(green)끼가 있는 색조는 다소 퇴조하여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는 4 행사별 색상을 한 색상환에 오버랩 시켜서 나타낸 것이다.

위의 색상 분석에 의하면 색상에 있어서 해외 트렌드 반영성이 높은 컬렉션은 대구 컬렉션이었고, 경북 패션 페스티

발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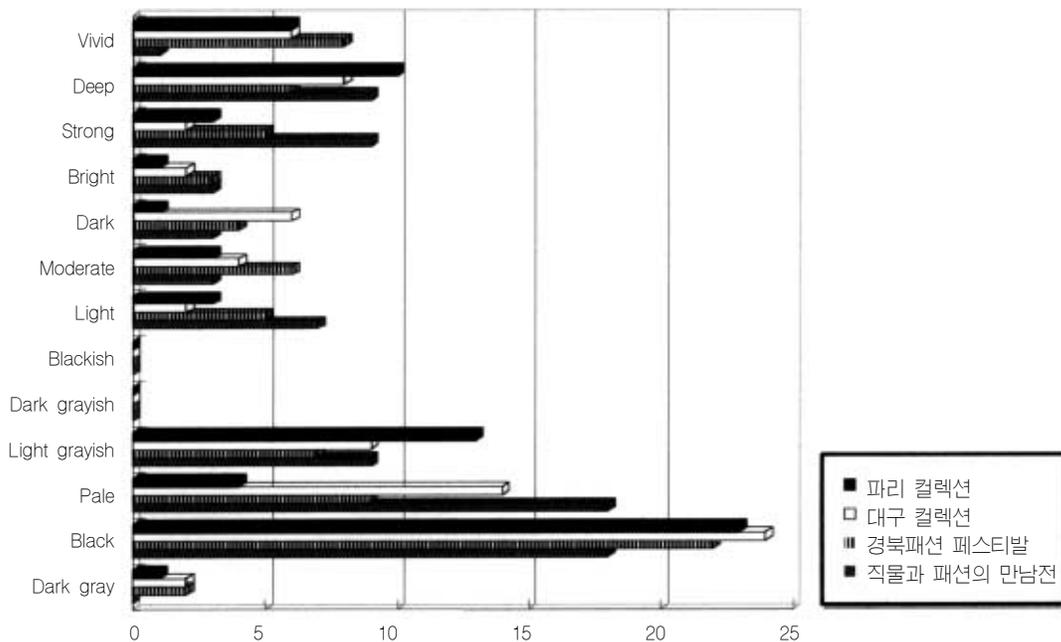
톤경향 분석에 있어서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의 분포도에서는 화이트(white)와 블랙(black)이 거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페일(pale), 딥(deep)과 스트롱(strong)이 강세를 보여 원색보다는 중간계통의 색이 눈에 많이 띄었다. 경북 패션 페스티발을 분석한 결과는 역시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가 큰 강세를 보인 반면 다른 톤(ton) 분포에 있어서 산발적인 분포를 나타내어 톤(ton) 별로 크게 강세를 보인 색상은 찾기가 힘들었다. 대구 컬렉션에서는 역시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또한 라이트 그레이쉬(light grayish), 페일(pale) 그리고 딥(deep)과 비비드(vivid)가 많이 나타났다. 파리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는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라이트 그레이쉬(light grayish)와 딥(deep)톤의 색상도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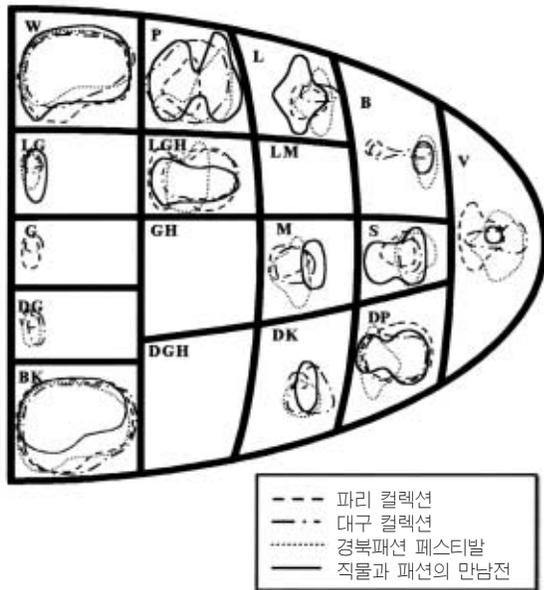
<표 9>는 행사별 톤 비교 분석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black(18%, 22%, 24%, 23%) 과 pale(18%, 9%, 14%, 4%)이 큰 강세를 보였으며, vivid와 같이 강한 색조 보다는 회색빛이 가미된 light grayish(9%, 7%, 9%, 13%), 다음으로 light(7%, 5%, 2%, 3%), moderate(3%, 6%, 4%, 3%)과 같이 중간톤의 보다 안정된 색조가 인기 있었으며 또한 deep(9%, 6%, 8%, 10%)과 같이 다소 중후한 색도 역시 많이 나타났다. 톤에 있어서는 국내 및 해외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3>는 4개행사별 톤(ton) 표를 한 도표에 오버랩 시켜서 나타낸 것이다.

이상으로 행사별 톤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모두 블랙

<표 9> 행사별 톤 비교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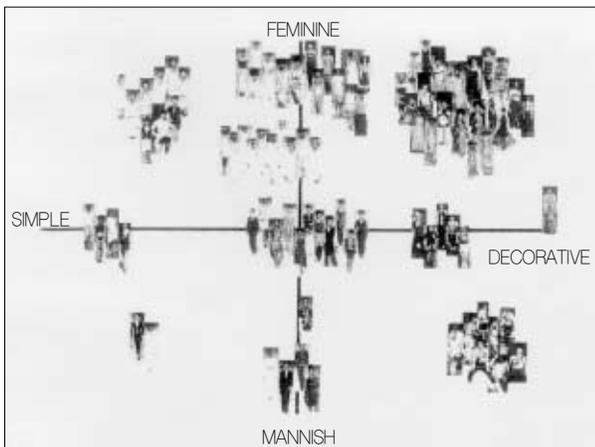
〈그림 3〉 행사별 트렌드 비교

(black)과 화이트(white)가 거의 대등한 비율로 가장 강세를 보였고 라이트 그레이쉬(light grayish)와 딥톤(deep tone)의 중간톤(ton)류가 '98 봄/여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과 대구컬렉션은 해외 트렌드 반영성이 높은 반면 경북 컬렉션은 톤(ton)별 분석에서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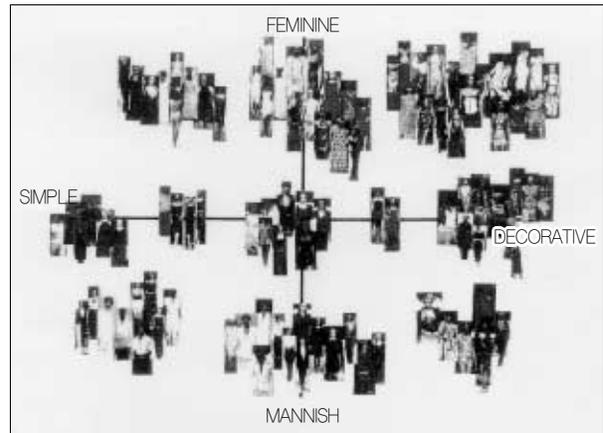
4. 패션 이미지(fashion image)

〈표 10, 11〉은 패션 이미지를 나타낸 맵으로 상하방향의 축은 각각 페미닌(feminine)과 매니쉬(mannish)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좌우축은 심플(simple)과 데코라티브(decorative)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국내 컬렉션의 패션 이미지맵



〈표 11〉 파리 컬렉션의 패션 이미지맵



〈표 10〉은 대구 컬렉션 등 국내 컬렉션의 패션 이미지를 종합한 맵으로 페미닌 데코라티브경향과 페미닌경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외에는 중성적 스타일이나 심플 페미닌, 데코라티브 매니쉬가 적은 비율로 나타나, 페미닌 데코라티브 경향이 압도적임을 알수 있었다.

〈표 11〉은 파리 컬렉션의 이미지맵으로 페미닌 데코라티브경향과 페미닌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니쉬나 심플경향이 페미닌경향과 대등한 비율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발표된 작품경향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대구지역 디자이너들의 해외 트렌드 수용성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에 대구지역에서 개최된 행사인 대구 컬렉션, 경북 패션 페스티벌,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등 3개행사와 해외 컬렉션으로는 파리 프레타 보르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헌적 자료와 사진 자료분석을 병행 실시하였다.

국내외의 패션쇼를 통해 발표된 트렌드를 분석하기위해 실루엣, 디테일, 색상 그리고 패션 이미지등 4가지 디자인 요소별로 분류하여 의류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3명이 합동으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루엣 분석에서 4개 행사 모두 슬림 라인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그의 엘롱게이티드(elongated),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와 같이 몸에 밀착되고 여성스러운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내 컬렉션은 슬림 라인에

강하게 치우쳐 있는 반면 해외 컬렉션에서는 실루엣의 편중이 비교적 낮았다.

2. 디테일에 있어서 부분 장식물로는 국내의 모두 회화나 식물문양을 이용한 프린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드로스트링(drawstring), 랩 스타일(wrap style)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컬렉션의 경우는 레이어드(layerd), 코사쥬(corsage), 크래프트 액센트(craft accent) 역시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네크라인에는 4개 행사 모두 캐미솔 네크라인(camisol neckline), 홀터네크(halter neck)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베어드 탑(bared top), 브이 네크라인(V neckline), 보트(boat), 로우 네크라인(low neckline)과 같이 목을 완전히 노출시킨 형태로 여성미를 부각 시키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칼라에서는 국내외 모두 자켓류에 많이 쓰이는 테일러드(tailored), 피크트(peaked)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컨버터블(convertable), 셔츠(shirts), 윙(wing), 이탈리아(italian collar)와 같이 스포츠 웨어에 활용 가능한 칼라도 많이 나타났다.

소매에서는 디자인 변형이 크게 없었고, 기본형인 셋인 슬리브(set in sleeve)와 슬리브리스(sleeveless)가 4개행사 모두 많이 나타났으며 소매 자체에 장식적인 요소를 부가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스커트와 팬츠의 길이는 발목 길이와 무릎위 길이가 가장 큰 강세를 보였다. 또 지극히 페미닌한 스타일을 나타내는 마이크로 미니를 포함한 미니 길이도 약 20% 이상 차지 하였으며 바이어스 컷을 이용한 언밸런스 길이도 많이 등장하였다.

하의 디자인에 따른 분류에서는 **딥** 슬릿 스커트(deep slit skirts)와 와이드 팬츠(wide pants)그리고 이레귤러 헴 스커트(irregular hem skirts)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파리 컬렉션에서는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버뮤더 팬츠(bermuda pants)도 21% 이상 나타났다.

3. 색상분석에서 레드(red)와 블루(blue)가 4개 행사 모두 강세를 보였고, 그밖에 국내 행사에서는 옐로우(yellow)끼가 가미된 계열이 많이 나타났다. 또 톤분석에 있어서는 블랙(black)과 페일(pale)이 많이 나타났고, 회색빛이 가미된 라이트 그레이쉬(light grayish)나 중간계열인 모데레이트(moderate), **딥**(deep)톤이 많이 나타났으며 국내외 행사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4. 패션 이미지는 국내행사인 경우 페미닌 데코라티브 경향과 페미닌 경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파리 컬렉션의 경우

는 페미닌 데코라티브 경향과 페미닌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니쉬나 심플경향이 페미닌경향과 대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 국내외 행사에서 발표된 트렌드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외 컬렉션이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인터내셔널화한 감각을 갖춘 소비자의 마인드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 지역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행사의 경우 해외행사에 비해 소수의 일정 트렌드에 대해 강한 편중현상을 보여, 시즌 트렌드가 해외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다양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소비자 마인드를 읽기 위한 지역 디자이너들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구패션조합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에 의한 분석이므로 전체 컬렉션을 완전히 분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다. 특히 색상 분석에는 사진의 상태나 현상 정도에 따른 다소의 오차가 있었고, 실루엣 분석에서 움직이는 모델을 찍은 관계로 다소 부정확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나, 약간의 오차는 따를수 있다. 또 이 연구는 98년에 개최된 모든 컬렉션을 다룬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문헌

1. 한정미, 국내 패션쇼에 관한 실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4.
2. 이지희, 정보원으로서 패션쇼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3. 노영, 한국 Fashion Trend분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 이호정, 패션 마케팅 & 패션 트렌드 분석(1955-1995), 교학 연구사, 1996
5. 뿌리깊은나무, 샘이 깊은물, 1985. 4월호, p.92
6. 이지희, 정보원으로서 패션쇼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74.
7. 한국일보, 1962. 5. 19 일자.
8. 한국일보, 1967. 9. 7 일자.
9. 복장계, (사)대한복장기술경영학회, 1976. 1월호.
10. 의상, 의상사, 1976. 5월호, p.92.

11. 의상, 의상사, 1976. 7월호, p.100.
12. 주간섬유, 1986. 5. 7일자.
13. 허진희, 프로모션 매체로서의 Fashion Show에 관한 소비자
자와 주최자의 인식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8, p.22.
14. '98 S/S Samsung Fashion Trend, 삼성패션연구소
15. '98 S/S Fashion trend fair, Interfashion Planning
16. KFS Forecast '98 S/S Influence, KFS
17. '98 S/S Collezioni Prêt-à-porter, No. 61
18. 오히선·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19. Fashion color, No. 56,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
20. 김란기, 클림트 회화의 장식적 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
인 연구 -펠트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